

經濟學 方法論에 關한 小考

金 相 溫

經濟學科

(1983. 9. 30 접수)

〈要 約〉

本考는 經濟學 方法論을 주로 學派를 中心으로 살펴보고 있다. 方法論이란 대체로 學問하는 技法的節次를 뜻하나 어떤 경우에는 單純히 方法이라는 意味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좀 더 넓은 意味로 解釋하여 概念의 探究, 理論, 그리고 主題를 파악하기 위한 論法의 基本原理등을 뜻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理解하기 위해 社會科學의 成立過程과 그 科學性에 대해 살펴보았다.

經濟學에 있어서 方法論에 關한 論議가 活潑하지 못한 데 이에 本考는 앞으로의 方法論 論議에 있어 토대를 마련키 위해 試圖한 것이며, 대체로 이제까지의 經濟學에서 援用하고 있는 分析方法은 數量的 客觀的 物質的인 分析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經驗하는 經濟社會는 그와 같은 分析만으로는 不可能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最近에 論議되고 있는 主觀主義의 方法論의 채택이 앞으로의 課題가 되리라고 믿는다.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Kim, Sang On

Dept. of Economics

(Received September 30, 1983)

〈Abstract〉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The term methodology is generally taken to mean the technical procedure of a discipline, sometimes being a more impressive-sounding synonym for methods. But in this thesis it denotes an investigation of the concepts, theories, and basic principles of reasoning of a subject with wider sense of the term.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cientific nature of the social sciences are also examined to understand the economics as a social science.

In economic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is not prevalent, so this thesis is provided for the basis of further discussion.

On the whole analyzing method used in economics is quantitative, objective, and physical. More frequently, it is impossible to analyze the facts of economic society with those methods.

So I believe it the task for us to adapt the subjective methodology which is prevalent in other disciplines

I. 方法論이란 무엇인가?

1. 方法論의 定義

知識을 體系 있게 整理하여 그 一般性을 유도하며 하나의 學問으로서 成立되게끔 하는 知識探究의 形式 내지 技法을 學問하는 方法이라 일컬으며 이러한 方法이 妥當한가의 與否를 밝혀줄 수 있는 哲學의 思惟 내지 論理의 構造를 方法論이라 指稱한다.

方法論은 다른 말로 表現하면 知的 活動의 方向에 關한 하나의 믿음과 같은 것으로 그 影響은 理論의 形成으로 부터 論理展開 그리고 結論의 類推에 까지 미치며 그 重要性은 결코 看過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論은 諸學問間에 있어 相異한 學問이고 같은 學問分科內에서도 學者間에 思惟의 論理가 異なる 當然하면서 바람직하기까지 한 것이다. 왜냐하면 學問의 發展내지 成熟은 서로 視角을 달리하는 論者들 사이에서 더욱 활발히 그리고 건지하게 그 結實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方法論에는 哲學, 社會學, 論理學등을 기초로 하는 理論의 面과 資料의 수집, 分析등의 技法도 포함한다.

2. 方法論과 認識의 問題

方法論은 知的 認識의 方向을 設定해 주는 수단으로 知的 認識이라 한은 存在에 대한 知覺 내지 現象把握을 意味하는 것으로 探究하고자 하는 對象의 性質과 構造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그 認識方法으로서의 方法論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認識對象이 어떠한 性質과 構造를 가진 것으로 理解되느냐에 따라 相異한 說明方法 내지 理解方法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西歐에 있어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 이르기 以前까지에는 知的 認識方法을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데 하나는 目的論的 說明方法(teleological explanation)으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B.C.) 以來 人間行爲를 目的指向的으로 說明하는 바 例示하면 宗

敎의인 敎義 從두려 內에서만 說明할 수 있던 고로 모든 存在의 問題를 神의 攝受에 귀착시켰다. 또 다른 하나는 因果論的 說明方法(causal explanation)으로 이는 「갈릴레오」(Galileo, 1564~1642)와 「뉴턴」(Isaac Newton, 1642~1727)에 의해 確立된 自然科學的 說明方法을 導入하여 存在實體는 科學的으로 說明되어야 한다는 즉 存在實體를 說明함에 있어 原因結果가 分明한 一般法則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機械論的 說明方法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目的論的 說明方法과 因果論的 說明方法間의 見解差를 해소하기 위해 物質·精神의 二元論(dualism)을 띄고 있는데 存在의 世界는 精神과 物質의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精神世界에는 目的論的 說明方法이 그리고 物質世界에는 因果論的 說明方法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方法論의 二元論)

17·8세기에 들어서 좀 더 體系의인 認識方法의 對立이 있게 되는데 「데카르트」를 中心으로 하는 合理主義(rationalism)와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로크」(John Locke, 1632~1704),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등을 中心으로 하는 經驗主義의 對立이 그것이다. 前者는 直觀(intuition)과 演繹(deduction)을 통해 確고한 知識을 構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後者는 感覺을 통한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확고한 知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相異한 經驗主義의 見解와 合理主義의 見解를 統合하려는 시도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의해 行해졌는데 「칸트」는 科學의 眞正한 課題는 論理的으로나 經驗的으로도 得립없는 知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經驗的 知識과 論理的 知識의 統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칸트」自身에 內在해 있는 合理主義的 屬性때문이었다.⁽¹⁾ 이는 훗날 新「칸트」學派와 新觀念論者 사이의 논쟁으로 미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세기 중엽 「공트」(Auguste Comte, 1798~

(1) 「칸트」의 精神의 領域은 차라리 合理主義에 屬하고 있었다. 그는 人間의 認識活動의 對象을 物 그 自體(Ding an Sich)로 認定하면서도 그것이 科學的 對象이 되자면 意識된 事實(facts of consciousness)일 것은 要求한다. 즉 意識에 의해 感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트」가 提示하고 있는 科學的 方法論은 첫째, 모든 知識은 感覺을 통한 관찰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둘째, 科學的 方法으로 얻는 知識만이 眞正한 知識이다. 셋째, 理論으로부터 法則을 유도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科學的 知識의 眞正성이 인정된다. 넷째, 科學的인 知識은 自然과 科學의 여러과정에 대한 技術的인 統制를 可能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1857)와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은 모든 存在實在에 대한 科學的 說明은 因果的 說明이 되어야 하며, 모든 知的 認識의 標準인 方法은 自然科學의 方法이며, 모든 知的 認識方法은 하나의 方法論으로 統合될 수 있다는 實證主義(positivism)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實證主義는 方法論의 一元論(methodological monoism)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³⁾ 첫째, 모든 現象은 法則에 의해 支配되고 있으므로 自然科學이든 社會科學이든 基本作業은 그러한 法則을 發見하는 일이다. 둘째, 方法論의 一元論은 自然科學에서 저런 社會科學에서도 모든 資料가 數量化된 것을 要求한다. 셋째, 社會現象中에서도 人間行動에 관한 科學的인 探究는 個人的 主觀적인 體驗을 어떻게 다루냐는 問題에 부딪히는데 資料의 數量化와 客觀化를 위해 人間の 行動을 客觀的인 要因들의 관계로만 說明하는 行動主義의 方法을 主張한다. 넷째, 方法論의 一元論은 自然科學의 領域에서 단이 아니라 廣義적으로 보면 科學의 分野들이 物理學으로 還元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實證主義的 思想의 源頭은 프랑스에서는 계몽사상, 英國에서는 「홉」에게서 이미 그 賦이 찾아지는데 「홉」은 因果關係란 단지 人間の 意識에 의해 構成되는 것으로 우리의 意識속에 가공적으로 存在할 뿐이지 客觀的으로 實在하는 것은 아니고 그 意識의 반복에 의해 慣習(convention)이 생기며 이 慣習에 의해 變용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뒤에 살펴 볼 現象學에 차라리 큰 影響을 미쳤다.

이에 대한 反論으로 觀念論(idealism)내지 解釋學(hermeneutics)에서는 우리가 感覺으로 經驗하는 存在實體는 可變의이며 多樣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비해 觀念(idea)이야말로 不變의 것으로 存在實體를 構成해주는 本質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念論의 정점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에게서 살펴 볼 수 있는데 歷史란 궁극적 理性의 自我實現過程으로 구체적으로 表現하던 世界의 모든 實體의 現象은 人間意識에 의해 創造되며 秩序지워진다는 것이다. 즉 理性에 의해 歷史속의 社會的 制度내지 形式이 規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觀念論의 立場에서 보면 社會現象은 自然現象과는 다르게 把握되

는 것으로 自然現象에 대해서는 說明的(erklären)인 方法이 適用되어 法則定立的(nomothetic)일 수 있지만 社會現象에 있어서는 다만 그 現象을 個別的으로 理解(verstehen)하려고 하는 데서 그쳐야지 說明을 통한 因果論의 法則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實證主義는 自然科學의 方法論을 채택하는 英國의 經驗主義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發展하여 1920年代에 들어서자 「비엔나」學派(the Vienna circle)가 主軸이 되어 數理論理를 배경으로 하는 論理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로 이어진다. 論理實證主義는 以後 論理展開上의 問題, 分析命題와 綜合命題의 區別問題, 그리고 科學의 法則의 性質에 관한 問題 등에 관한 수많은 비판이 提起되어 가는 그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였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新觀念論者와 新「칸트」學派사이에서 實證主義的 分析方法을 社會現象研究에 適用하는 것이 妥當한가에 관한 論議가 다시 일어난다. 社會科學方法論의 妥當性을 따지는데 있어 核心이 되는 點은 바로 研究對象이 어떠한 性質을 가진 것으로 把握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있어 新觀念論者인 「딜타이」(W. Dilthey, 1833~1911)는 自然科學과 文化(精神)科學을 뚜렷이 區別하고 “自然은 說明하고 精神生活은 理解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人間の 삶으로 엮어진 社會現象 내지 文化領域을 理解하는데 있어 自然科學의 方法의 適用에 限界性이 있음을 明白히 指摘하고 있다. 自然科學이 다루는 것은 事實로 그 研究에 있어 實驗의 技法을 使用하여 說明可能하나 文化科學은 意味를 다루는 것으로 그 研究는 解釋을 통해 理解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딜타이」는 對象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文化科學의 고유한 方法論을 設定하고 있다.

新觀念論의 見解에 대한 新「칸트」學派인 「리케르트」(Heinrich Rickert, 1863~1936)의 생각을 살펴 보면 科學이라는 概念에 있어 「딜타이」的인 생각을 탈피하고 있는데 科學이라 하면 自然科學이건 文化科學이건간에 諸現象間의 一般法則을 유도해 내는데 그 所以가 있기 때문에 研究方法上의 差異는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研究方法上의 差異는 科學과 歷史學사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科學은 因果律을 찾기 위해 諸現象을 分析하는데 반

(3) 蘇英烈, “實證主義와 社會科學”, 韓國社會科學協議會編, 社會科學方法論, 博英社, 1983.

해 歷史學은 個別的이며, 고유한 事件들을 價値介在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이다.⁽⁴⁾

이제 新觀念論의 立場과 新「칸트」學派의 立場을 對照하여 統合하려는 試圖가 「베버」(Max Weber, 1846~1920)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베버」는 「리케르트」와 마찬가지로 方法論에 있어 相異함을 기준으로 歷史學과 科學으로 區分하고 있다. 科學이 完全한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높은 說明力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價値判斷으로부터 自由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價値判斷으로부터 自由로와야 한다는 것은 無思想的이고 無主體的인 態度를 갖춘은 결코 아니며 다만 事實認識의 問題와 價値判斷의 問題를 엄격히 區別하라는 要求일 뿐인 것이다.

「공」이나 「슈본러」등이 얘기하고 있는 賞鑒을 통한 價値判斷을 「베버」는 理解할 수는 있었지만 價値觀의 混同이 만연하는 時代속에서 客觀的인 價値判斷의 可能性과 그 有効性을 確信할 수 없었다. 즉 「베버」에게 있어서 賞鑒을 통한 價値判斷은 現實的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判斷되었기 때문에 事物의 眞相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價値判斷으로부터의 自由로움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科學을 自然科學과 文化科學으로 나누고 文化科學도 科學이므로 文化現象의 因果的 法則을 규명하는 것이며 다만 實在는 궁극적으로는 法則의 體系로 還元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文化科學에 있어서의 豫測의 限界를 認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把握할 때 「베버」는 社會科學은 科學으로서 社會現象의 因果的 說明을 追求해야 함과 同時에 그 對象이 性質上 文化現象 내지 歷史現象인을 고려하여 意味의 解釋을 통해 理解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歷史는 事件展開의 前後關聯(sequences)을 說明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위에서 살펴본 經濟學方法論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社會學등 方法論의 論議가 關聯한 社會科學內의 他分科에서 論議되고 있는 現象

學 解釋學, 批判理論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現象學에서는 現象이란 어느 觀察者에게나 共通으로 客觀的인 實體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觀察者의 認識方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現象을 제대로 把握하고 諸現象사이의 因果法則을 밝히려면 우리의 意識的 形式을 간파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現象學의 始祖인 훗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意識의 形成을 構成(constitution)이라고 하고 있으며 모든 現象은 構成에 의해 決定지워지며 現象에 대한 理解에는 構成에 대한 理解가 前提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 解釋學의 立場에서는 社會現象이 理解(verstehen)에 의해서 解釋되어야 하는 것으로 把握하며 批判理論에서는 既存의 社會構造에 의해 維持되어 나오고 있는 階級의식은 意識의 變遷을 통해 階級이 하나 既存의 틀로부터 意識을 해방시키던 當면시 되던 構造도 批判的으로 바라볼 것을 要求한다.

II.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

近代市民社會에 대한 分析으로부터 出發한 經濟學은 社會科學中에서도 가장 먼저 獨立分科化한 學問이다. 體系的인 經濟學은 英國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初에 걸쳐 成立하였다. 이것이 古典學派인데 社會에 대한 經濟的 分析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는 이 보다 훨씬 古로 올라가 重農主義나 重商主義의 學者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社會에 대한 經濟的 分析은 살펴보면 人間의 生活樣式을 규정하는 것은 人間이 生活資料를 生産하는 方法이며 肉體的 勞動力을 形生産하는 方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生産方法을 규정짓는 것은 生産力의 水準이며 生産力의 發展은 그에 따라 社會의 關係를 構成한다는 식의 分析이다. 이와 같이 經濟學은 社會現象을 把握함에 있어 主로 經濟的側面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學은 社會科

(4) 「리케르트」의 다음 말을 보면 그 意味를 分明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價値)로 결부되어 있지 않고, 혹은 우리가 이해할만한 어떠한 意味도 지니고 있지 않는 따라서 우리가 처음 말한 뜻에 있어서의 單純한 「自然」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諸現象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論理的 意味에서 自然科學的(관심)밖에 없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諸現象의 경우에는 個個의 現象은 그(個性)이 아니라 보통은 다만 大소간에 보편적인 概念의 事例로서 우리에게 問題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意味나 價値를 지닌 文化事象들이나 또는 文化에 關聯지워지는 것던계로서의 事件들의 경우에는 事情이 다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關心은 특수적 個性的인 것 및 그것의(1回的인 經過)에로도 쏠려지기 마련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歷史的으로 個性化함으로써도 알리고 하는 것이다.

학의 한 分科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社會科學의 成立과 그 科學性을 살펴보는 것은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社會科學의 成立

社會科學의 成立을 歷史적으로 살펴 보면, 18·9 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社會組織의 實際를 分析하기 보다는 '있어야 할' 즉 當爲的인 社會組織의 規準을 탐구하는 데에 重點이 두어져 왔다. 前者에 關한 研究를 社會哲學(Social Philosophy), 後者에 關한 研究를 社會科學(Social Science)이라 할 수 있는데 18·9세기에 이르러 사회관찰을 통해 社會法則이라는 觀念의 形成과 더불어 社會科學이 成立되기 以前까지에는 社會哲學과 社會科學이 混同되던 時期였다.

社會哲學으로부터 科學的인 것이 떨어져 나오기 위해 무엇보다 必要했던 것은 形而上學的이고 規範的인 傾向으로 부터 離脫하여 관찰 및 經驗에 의한 歸納的 推論方法의 導入이었다. 古代의 경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 類型的 對比를 살펴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은 그가 著述한 「國家」(Republic) 第4卷안에서 한 國家內에는 2個 이상의 계급 階級이 存在한다고 하며 특히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對立에 대해 把握하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스톤 포함하여 158個의 都市國家의 憲法을 具體的 資料를 통해 分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對比를 잘 알 수 있다. (現在까지 傳하는 것은 「아레네」憲法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研究態度가 「플라톤」에 비해 현저한 科學的이라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의 知的 探究 자세는 形而上學的이고 道德的인 傾向에 있음은 물론이다.

中世에 있어서는 그리스도敎의 敎義와 그 規範性에 의해 理性이 한층 制約안아 오리라 科學的 社會研究의 태도는 감퇴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敎의 根本原理에 影響을 받아 社會研究의 歷史的 傾向은 強化되었다. 또한 이 時期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最初의 經驗의 著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레슴」(Nicole Oresme)의 「貨幣의 最初의 發明에 關한 概論」(Treatise on the first invention of money)이라는 冊이 1370년에 出刊된 것이다. 社會科學은 그 成立에 있어 個人的 獨立 독립 政治的 自由의 획득에 따른 市民社會의 成立과 關

聯關을 갖고 있다. 즉 「르네상스」와 宗教改革을 거치면서 個人的 獨立, 自由, 尊嚴性에 대한 自覺이 高潮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封建社會가 解體되고 市民社會成立에로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個人과 社會와의 關係가 아직 확고히 定立될 수 없었기 때문에 社會科學의 成立은 볼 수 없었으나 이제 그 出發點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社會組織에 關한 理想的인 原則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먼저 既存社會의 實體에 대한 把握이 先行되어야 할 必要가 있었고 이에 社會組織에 關한 機能的 構造의 研究로 그 시각은 돌리게 되어 社會科學의 成立이 可能했던 것이다.

이제 그 成立過程을 살펴 보면, 가장 典型的인 「부르주아」革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大革命(1798)을 契機로 하여 獨立生産者들은 自身들의 社會에서의 位置를 絶對主權이나 商人資本家들로 부터 分離시켜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市民社會의 새로운 主役으로 登場하였다. 市民社會가 成立되고 社會에서의 個人的 位置가 確立되자 社會現象에 關해 研究하는 분위기가 증대와는 다르게 성장했다. 차츰 科學과 哲學을 分離하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었고 科學的인 태도에 입각하여 著述된 冊의 數가 급격히 增加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同世紀間을 통해 여전히 社會事實에 關해 哲學的으로 研究하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社會現象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著述이 發表되었는바 그 中 「몽테스키외」(Charles Montesquieu, 1689~1755)는 「法의 精神」(1748)에서 社會法則의 概念에 대하여 'I describe here what is and not what ought to be'라고 한 것은 科學的 관찰에 대한 당시 學者들의 正열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에 있어서 더욱 重要的 事實은 社會法則이라는 概念이 形成되었다는 것이다. 즉 社會에서 發生하는 諸現象이 一定한 法則에 의해 支配된다는 생각이 싹텄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처음으로 明確하게 指摘하고 있는 學者로 「네부르」(Dupont de Nemours)는 「社會에 關한 物理的 諸法則」(Principles d'une science nouvelle, 1768)이라는 著書에서 社會的 諸現象은 神의 攝理的인 秩序에 의해서가 아니라 諸現象間의 必然的인 關係 즉 一定한 法則性에 의해 支配된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社會法則이라는 概念은 세계의 다른 方向으로 發展 展開되었는데 確率計算에 유래하는 統計

學的 法則, 人類의 進步를 說明하는 歷史的 法則, 物理的 世界의 法則에 유사한 法則이 그것들이다. 이들 중 세번째 方向이 우세하였는데 19세기에 들어서자 확고한 것으로 되었다.⁽⁵⁾

이제 「콩트」(Auguste Comte, 1798~1853)에 의해 社會科學의 對象(objects)이 定義되었으며 社會科學의 實證的 性格이 밝혀졌다. 「콩트」에 의하면 「有機物理學」(Organic Physics)은 個人에 관한 科學이지만 「社會物理學」(Social Physics)은 무한히 크고 영원한 社會單位(immense and eternal social unity)를 構成하는 人類의 科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社會物理學은 秩序(order)를 研究하는 社會靜態學과 進步(progress)를 研究하는 社會動態學으로 나눌 수 있다. 「콩트」는 社會科學을 倫理學에지 形而上學으로 부터 分離함으로써 社會法則이라는 概念을 확고히 設定하였던 것이다.

2. 社會科學은 科學인가?

科學이라면 實驗室을 연상하며 物理에 있어서의 落下實驗과 같은 自然科學의인 것을 흔히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科學이란⁽⁶⁾ 人間들이 經驗하고 感覺할 수 있는 世界에 存在하는 事象들(events)을 論理的으로 把握하여 어떤 事象의 發生이 自然的 또는 偶然的인 것이 아니고 原因이 있어 發生하는 것이라는 것을 決定시켜 주는 것으로 個別事象의 說明에 그치지 아니하고 一般의인 理解를 目標로 하여 經驗의으로 檢證이 可能하여 修正可能한 것이어야 한다고 定義할 수 있는 바 간략히 말하면 관찰을 통한 因果性의 發見 내지 一般化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人間들 사이의 諸關係로부터 派生되는 社會的 聯關을 다루는 社會科學은 科學인 수 있는가? 社會科學은 社會的 人間들의 行爲에 관한 것을 다룬다. 人間이란 그 自身이 하나의 自然的 生物인 同時에 精神의 主體로서 社會生活을 영위하는 社會構成體인 것이다. 즉 人間의 兩面的 側面, 自然的인 面과 社會的인 面이 結合되어 나타나는 社會的 關係가 科學의으로 把握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人間의 自然的인 側面은 觀察과 推論을 통해

볼 드러날 수 있지만 人間의 社會的인 側面은 原因과 結果에 있어 그 因果性이 항상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意味에서는 社會科學을 科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듯 하다. 이러한 立場은 社會科學의 文化的 心理的 側面을 強調하는 것이다. 英國의 社會學者 맥아이버(Robert MacIver)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社會科學이 自然科學과 다르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因果性이라는 面에서, 바람에 문에 날아가는 (flying) 종이 조각과 피켓은 균중물 때문에 도망가는 (flying) 사람 사이에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종이 조각은 두려움이 없고, 바람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중물과 도망가는 사람 사이에 두려움과 마음이 있다면, 도망치지도 피켓지도 않을 것이다.⁽⁷⁾

만면 社會科學도 自然科學의 方法 즉 觀察에 의한 因果性의 도출이 可能하다고 主張하는 立場도 있다. 이는 社會科學을 完全히 自然科學과 同等한 科學으로 理解하려는 立場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科學은 엄밀한 意味에 있어서의 自然科學과 같은 科學이 될 수는 없으나 「런드버그」(George Lundberg)가 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이 一定한 準據(frame of reference)에 의해서 分析을 시도한다면 科學的 接近이 可能하다는 意味에서 科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科學을 自然科學, 人文科學, 그리고 社會科學의 세 分派로 大別해 그 各各의 學問分野가 採用하고 있는 方法을 살펴볼진대 自然科學은 그 대부분은 對象이 物質的 客觀的인 同時에 感覺·精神이 없는 無情物인 고로 그 對象의 本質 내지 一般의 關係性을 규명하는데 있어 實驗, 觀察, 反復檢證 등의 方法을 選擇할 수 있으며 人文科學은 人間의 主觀的 精神作用을 다루므로 그 精神의 作用에 따른 決斷과 內容을 살피에 있어 그 범주가 비교적 明確하여 直觀的이며, 思辨的인 方法을 쓰는데 비해 社會科學은 그 대부분은 對象이 社會體系內에서 生成되는 人間들의 삶의 行態속에 나타나는 諸般 社會現象이므로 自然現象과 같이 純粹科學的인 方法으로 다룰 수도

(5) Maurice Duverger,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s,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1964. p.16.

(6) 科學의 特性에 대해서는 Earl R. Babbie Survey Research Methods. Belmont, Calif.: Wadsworth, 1973. pp.12~19참조.

(7) Robert M. MacIver, Society: A Textbook of Sociology (New York, Rinehart and Co., 1937), pp.476~477.

(8) George A. Lundberg, Foundations of Sociology (New York, Macmillan, 1939)참조.

「런드버그」는 위의 「맥아이버」가 들고 있는 예에 있어서 종이 마음이나 두려움이라는 말은 使用치 않고도 누구나 같은 상황하에서도 同一한 질차를 믿기만 하면 같은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는 일정한 틀을 가정하지만 해도 선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自然科學의 說明方法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있고 主觀的인 精神現象은 다루듯이 哲學的이며 形而上學的인 思辨的인 方法론을 채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科學을 研究하는 경우에는 그 學問的 基礎으로서 適當한 方法論確立의 必要性이 더욱 절실히 要請되는 것이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의 方法論에 대한 論議는 他學問分野에 있어서 보다 그 頻度나 強度가 훨씬 強烈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社會科學內의 모든 分科가 方法論論議에 있어 關涉했던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社會學과 政治學分野가 비교적 完備된 양상을 보였으며, 經濟學의 경우에는 그외는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相當한 論議가 있어 왔다.

III. 經濟學 方法論의 變遷

1. 古典學派의 方法論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經濟學의 始祖로 그의 著書「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은 經濟知識을 最初의 體系있게 集大成한 著述로 認定받고 있다. 그는 自身の 論議展開에 있어 「뉴턴」(Isaac Newton, 1647~1727)의 力學의 方法論을 使用하였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自然科學의 方法論을 高수한 것은 그의 初期의 論文인 「Principles which Lead and Direct Philosophical Inquires Illustrated by the History of Astronomy」가 그의 死亡後 유언에 따른 소각에서 除外된 얼마 안되는 論文中の 하나라는 事實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미스」는 「뉴턴」이 理論展開에 있어 神을 천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經濟的 均衡에 관한 豫定調和의 믿음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均衡到達의 過程을 自然科學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스미스」는 經濟行爲를 하는 主體는 理性을 가진 原子論的인 個人(atomistic individual)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個人들에 의한 經濟行爲의 集積에 의해 社會가 發達되어 나간다고 보았다. 그런데 「스미스」가 살던 당시의 英國은 이미 産業資本이 形成되고 있어 産業革命의 到來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獨占의 商來에서 富의 源泉을 찾는 重商主義的인 觀念을 벗어나 重商主義的 秩序와는 전혀 다른 市民社會를 形成해 나가고 있

었다. 이에 「스미스」는 個人들을 움직이는 어떤 原理가 이와 같은 前社會秩序로부터 離脫하여 새로운 社會를 構成케 하는가 하는 點은 解明하려 했다 따라서 「스미스」는 社會體系의 本質과 運行 및 그 將來에 대한 「비전」(vision)을 먼저 確立한 後에 經濟現象을 自然科學의 方法을 使用해 分析했다.

「스미스」는 經濟的 社會로서의 市民社會의 理論을 追究하였는 바 이들 自然法 思想의 經驗理論化를 그 思想근거로 하여 展開했다. 自然法 思想은 그 主體는 理性을 지닌 自然人이며 社會構成은 多數決原理에 입각한 社會契約論에 의해 說明하며 社會秩序는 世上萬事에는 秩序가 存在한다는 理神論的인 믿음에 의해 說明되는 바 이러한 自然法 思想과 스미스가 말하는 人間에 內在하는 屬性 즉 利己心, 利他心 그리고 第三의 방관자로서의 良心을 結合하여 說明되는 利他的 仁愛(altruistic sympathy)라는 道德的 原理에 의해 全市民社會에 대한 分析을 試圖했던 것이다. 즉 國家의 統속에 의해서가 아니고 各人의 自由로운 利己心이 發動하고 等價交換이라는 原理가 지켜질 때 商工業은 發達하고 富가 커질 때 따라 市民의 獨立心이 양양되어 社會的 正義가 構築되며 이에 따라 生産力의 發展이 더욱 促進되어 市民經濟的 社會가 成立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理性的인 自然인이 社會契約 原則인 多數決의 原理에 따라 行動한다면 社會全體의 으로는 調和된 秩序속에서 社會가 運行될 것이란 것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가 말하는 市場價格이 무단히 自然價格으로 귀속되는 現象은 社會에 內在하는 原理때문이라고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經濟學의 關心은 「스미스」以來의 生産으로부터 富의 分配로 이끈 「리카아도」(David Ricardo, 1772~1823)와 「人口論」으로 유명한 「말더스」(T.R. Malthus, 1766~1834)는 經濟學을 經驗科學으로 받아들여 自然法的인 形而上學的 要素는 배제하여 分析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自然的 秩序라는 概念을 무시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自然的 秩序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一貫하였던 것이다. 다만 「스미스」的인 樂觀主義의 展望이 아니고 「리카아도」는 社會的 生産物을 分配함에 있어서의 계급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말더스」는 食糧의 不足과 人口증가로 인한 社會進歩의 悲觀的인 見解를 갖고 있었다. 「리카아도」와 「말더스」의 認識 方法은 經驗主義的 方法이었는데 認識論으로서의

經驗論은 「메이건」이 「新機關」(Novum Organum, 1620)에서 삼단論法을 주로 하는 演繹法은 證明의 方法이지 發見의 方法이 아니라면서 「人間은 自然의 從者이며 理解者로서 自然現象의 事實과 自然의 思想에 대하여 觀察할 뿐이고 理解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經驗에 의하여 眞實에 到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認定하면서도 귀납에 의한 經驗만이 올바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터 出發했다. 以後 經驗論의 認識論은 「록크」(J. Locke, 1632~1704)에 의해서 確立되었으며 「밀」(J.S. Mill, 1806~1873)에게 까지 심대한 影響을 주었던 것이다. 「록크」는 그의 著書 「人間悟性論」(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人間의 마음은 白紙狀態이므로 모든 人間의 觀念은 經驗에 의해 아르새겨진다고 했다. 즉 觀念은 本來的인 것이 아니고 經驗에 의한 것이며 이 經驗으로부터 모든 知識이 出來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驗에 의해 感知된 知識만이 眞實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經驗에 의해 觀念이 形成되게 하는 두가지 精神作用으로 感覺(sensation)과 反省(reflection)을 들고 있다.

「밀」은 歷史主義와 함께 「공드」의 實證主義를 受容하여 「스미스」가 그리고 있는 自然的 秩序에 의한 經濟社會와 現實의 經濟社會와의 괴리를 和合시키려 노력했다. 「밀」은 이를 生産과 分配을 區分하여 說明함으로써 試圖하려 했다. 그는 生産過程은 物質사이의 技術的인 結合에 의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自然的 秩序에 따르는 것이지만 富의 分配은 人爲的인 社會制度에 의해 秩序지워지는 것으로 歷史的 環境에 따라 變化한다고 보았다.

또한 「밀」은 個個의 具體的인 經驗이 認識의 起源으로 된다는 「록크」의 經驗論의 見解를 더욱 發展시켜 歸納的 論理를 完成시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밀」은 歸納法論理에 演繹法을 統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說明을 自然的 齊一性(Uniformity of the Course of Nature)⁽⁹⁾이라는 概念下에 하고 있다. 그리고 自然的 齊一性이라는 特性은 先天的인 原理가 아니고 經驗의 事實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現象은 自然에 內在하는 齊一性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因果의 法則」도 마찬가지로

이 齊一性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생각하에서 社會科學의 學問的 方法으로서 歸納法을 展附하고 있는 것이다. 「밀」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眞正한 歸納이란 「既知의 事例에서 未知의 事例를 유도하는 推理」라고 定義하며 따라서 觀察된 事實이 單一回的인 것일지라도 一般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一回的인 事例로부터 一般的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歸納的 推理의 根據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는 循環論的인 모순이 內在해 있다.)

이로써 「밀」은 自然的 齊一性을 前提로 特殊에서 一般으로 원래적 意味에서의 歸納과 同時에 一般에서 特殊를 인식하는 演繹的 歸納論理를 成立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自然的 齊一性이 드러나는 것이 因果法則이라고 했는데 「밀」은 經驗對象으로부터 이러한 因果法則을 發見하는 方法으로 다섯가지의 實驗的 方法을 例示하고 있다. 즉 Method of Agreement, Method of Difference, Joint Method of Agreement and Difference, Method of Residues, Method of Constant Variation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實驗的 方法에 의해서는 比較的 單純한 現象에 대한 把握은 可能하나 社會現象 특히 經濟現象과 같이 複合的인 要素를 인고 있는 現象에 대하여는 適當치 않고 演繹的 方法이 더욱 妥當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밀이 말하는 演繹法은 어떤 現象을 發生시킨다고 생각되는 諸要因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검토하여 法則을 確立하는데 있어 前述한 實驗的 方法을 適用하는 歸納的 단계를 거쳐 다음으로는 純粹한 演繹的 推論을 통해 마지막으로 推論된 것을 直接觀察과 比較에 의해 檢證하는 諸段階에 걸친 것으로 經濟學 研究에는 이와 같은 具體的 演繹法(concrete deductive method)과 그 逆의 演繹法(inverse deductive method)이 妥當하다는 것이다.⁽¹⁰⁾

다시 말하면 「餘他的 條件이 一定不變이라면」(ceteris paribus)하는 가정하의 靜態的인 分析下에서는 具體的 演繹法의 適用이 妥當하고 體制의 生成 變化등을 다루는 것과 같은 歷史的인 現象을 다룰에 있어서는 逆의 演繹法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9) 여기서 齊一性이라함은 한번 發生한 것은 充分히 유사한 狀況下에서는 다시 發生할 것이고 또한 같은 狀況이 야기될 때마다 發生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10) 李政花, 經濟法則의 方法論的 批判, 漢陽大學院, 1972, pp. 64~67.

2. 歷史學派의 方法論

古典學派와 新古典學派의 經濟學에서는 自然法思想을 그 思想의 背景으로 하여 實證分析的으로 經濟法則을 發見하려고 努力한 反面 獨逸의 歷史學派의 經濟理論에서는 經濟法則은 自然法則의인 것이 아니고 歷史法則의인 것으로 간주하고 獨逸의 歷史哲學을 背景으로 歷史主義를 펴 나갔던 것이다.

古典派 理論에 대한 時代的 地域的 普遍妥當性은 古典學派의 完成者라고 할 수 있는 「밀」에 의해 최초로 의문시되었는데 「밀」은 經濟現象의 發生은 時代나 地域의 相異에도 不拘하고 事物의 本性으로부터 일어나는 必然性(necessities arising from the nature of things)과 社會制度에 의해 發生되는 必然性(necessities created by social arrangements)에 의해 규정되므로 이 두가지를 統合해야 한다고 했는데 歷史學派는 바로 後者の 必然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歷史學派의 經濟學자들은 法則觀의 轉換을 통해 經濟理論 自體의 變革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有機的 統一體로서의 國民經濟는 個別經濟에 先行하며 國民經濟를 研究하는데 있어서도 經濟的 側面만을 따로 分析하는 것이 아니고 國民生活全般을 聯關시켜 研究한다. 國民經濟의 歷史的 主體는 民族인데 民族이란 것은 道義⁽¹¹⁾를 갖고 있는 主體라는 것이다. 그리고 民族의 歷史的 展開過程에서 道義가 實現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歷史學派의 對象은 有機的 統一體로서의 國民生活과 倫理的으로 關聯되어 있는 國民經濟이며 歷史學派의 理論에는 倫理的 價値判斷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로스(W. Roscher, 1817~1894)는 그의 主著 「歷史的 方法에 의한 國家經濟學 講義要綱」에서 經濟學은 本質上 歷史的 方法이 必要하며 研究目標은 國民經濟의 發展法則을 규명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生産에 기여하는 要素를 自然, 勞動, 資本으로 나누고 經濟的 發展段階를 自然力이 支配하는 단계 勞動力이 支配하는 단계, 資本이 支配的인 단계로 삼고 있는데 이와 같이 經濟發展이 오직 生産要素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生産要素가 바뀜으로 發展단계가 규정된다면 그의 體系안에서의 經濟는 自律

的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前述한 바와 같은 國民經濟는 有機的인 國民生活의 한 側面이고 國民生活이 有機的 成長에 의해 이룩된다는 見解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把握되기 때문이다. 또한 經濟行爲의 動機는 利己心만이 아니고 正義, 道徳, 完成과 內省的 自由的 理念을 가진 良心이 作用하며 形成되는데 이는 協同心으로 統合된다는 것이다.

「크니이스」(Karl Gustav Knies, 1821~1898)는 그의 主著 「歷史的 立場에서 본 經濟學」(Die politischen Ökonomie vom geschichtlichen Standpunkte)에서 時間과 國民性을 조율하여 어느 경우에도나 適用될 수 있는 經濟理論이란 存在할 수 없다고 하며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私有財産과 利己心을 前提로 하여 展開한 理論이 普遍妥當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크니이스」에 의하면 私有財産을 決定지워주는 制度는 時間的 變化와 더불어 變하고 利己心은 中庸 良心에 의해 抑制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크니이스」는 經濟主體로서의 人間은 肉體에서와 같이 利己心과 良心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結合되어 自愛心의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크니이스」는 國民經濟를 움직이는 要素中 物質的인 것으로 客體의 要因, 人格的인 것으로 主體의 要因을 들고 있는데 客體의 要因은 社會現象的인 것으로 歷史的으로나 諸國民間에 差異가 있는 것이고 主體의 要因은 人間의 內面에 關係되는 것으로 各國民에 고유한 國民精神에서 形成된 複合的·文化的 有機體라는 것이며 國民精神이 經濟生活에 展開된 것이 國民經濟이므로 國民經濟 역시 複合的 有機體라는 것이다. 그런데 客體의 要因과 主體의 要因은 모두 다 地域的, 時間的인 面에서 相對的인 것이기 때문에 一般的 經濟理論을 찾아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고 經濟學的 認識에 있어서 相對性이 強調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理論은 古典學派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特殊하며 限定的인 意味를 갖게 되며 經濟人이라는 概念도 各國事情에 맞는 時間的 空間的 特殊事情을 갖는 具體的 存在로 대체 된다. 이와 같은 理論의 相對性은 空間的으로는 類似의 法則(Gesetz der Analogie), 時間的으로는 發展의 法則(Gesetz der Entwicklung)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1) 「칸트」가 先天的主觀(悟性)을 中心으로 客觀認識을 說明하기 위해 그의 目的論에서 말하고 있는 合理性과 眞理性의 道徳性은 「헤겔」에게 있어서는 合法性과 道徳性으로 대체되어 이 合法性과 道徳性은 道義에 있어서만 綜合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限界効用學派의 方法論

1870年代에 들어서자 英國의 「제본스」(William S. Jevons, 1835~1882), 프랑스의 「알타스」(Léon Walras, 1834~1910),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멩거」(Carl Menger, 1840~1921)는 거의 同時에 地域을 서로 달리 하면서도 우연히 同一한 內容의 理論을 發表했다. 이들은 당시에 支配的이던 客觀價値學說을 否認하고 主觀價値學說을 主張하여 財貨의 價値는 使用價値나 交換價値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限界効用에 의해 決定된다고 쓰고 있다. 이들은 古典學派와는 달리 演繹的 方法論을 使用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멩거」를 中心으로 집적된다. 먼저 「멩거」는 後期歷史學派인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 1838~1917)와의 論爭으로 有名한데 「슈몰러」가 自然科學과 文化科學(혹은 社會科學)을 區別하여 前者는 同質的 連續化된 概念으로 一般化시켜 自然科學의 概念을 形成할 수 있지만 後者は 價値關聯의 個別的 概念이기 때문에 異質的 不連續化된 概念으로 把握해야 한다고 하며 自然科學과 文化科學(혹은 社會科學)은 方法論上에 差異가 있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반면 「멩거」는 社會科學에서도 自然科學에서의 같은 普遍妥當性을 目標로 해야 한다고 하며 研究方法上에 差異가 있을 수 없다고 上張하고 있다. 「멩거」는 1883년에 「社會科學 특히 政治經濟學의 方法에 關한 研究」(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Ökonomie insbesondere)라는 冊에서 「슈몰러」의 歷史主義는 理論經濟學을 經濟史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實踐經濟學을 理論經濟學의 範위에 포함시키도록 研究領域을 恣의하게 變換했다고 비난하였다.⁽¹²⁾ 그는 經濟學을 經濟史, 理論經濟學, 實踐經濟學으로 區分하고 理論經濟學의 方法은 現象의 單純한 認識(erkentnis)과 理解(verstehen)로 區別되는데 理解라는 것은 實在과 樣相(sein und sosein)을 認知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具體的인 現象의 生成過程을 歷史적으로 밝히는 歷史的인 見解와 具體的인

象의 繼起共存을 보여주는 法則을 밝히는 理論的인 見解로 나누어진다고 하였고 理論的인 見解는 또 다시 經驗的인 實存論的인 理解와 精密的인 理解로 나눌 수 있는데 方法論的인 個人主義에 입각한 이 精密的인 理解에 의해서만 諸現象에 대한 精密法則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理論經濟學이 밝혀야 할 課題라고 했다. 이는 前와 같이 이 論爭은 「멩거」의 勝利로 끝났으며 그 結果 經濟學의 研究方向은 더욱 普遍爲主的인 自然科學的인 方法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렇지만 限界効用學派가 基礎를 두고 있는 認識方法은 先驗論的인 演繹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限界効用學派의 方法論으로 明示的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면 限界効用學派가 主觀價値의 論議對象으로 文化價値關係의 으로 규정되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先驗論에서 多樣한 經驗對象中에서 超個人的인 主觀에 의해 對象化 할 수 있는 것만은 가려⁽¹³⁾ 客觀的인 認識이 可能한 對象으로 남아있었다는 것과 그 內容이 一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先驗論的인 文化科學的인 研究方法은 당연히 演繹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北歐學派의 方法論

「오스트리아」學派의 「로잔느」學派의 影響을 받아 近代經濟理論에 큰 공헌을 한 北歐學派는 資本主義 經濟體系를 安定性의 문제에 있어 根本적으로 古典學派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北歐學派는 資本主義 經濟體系를 安定的인 均衡의 體系로 보고 있지 않다. 즉 古典學派의 體系에 있어서는 外部的인 충격에 의해 安定的인 均衡으로부터 一時的으로 離脫한다고 하여도 곧 體系自體內의 復元力에 의해 均衡으로 復歸된다고 보고 있으나 北歐學派 體系에서는 外部的인 충격에 의해서건 혹은 內生的인 原因에 의해서건 일단 安定均衡狀態에서 經濟狀態가 離脫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上昇的인 累積過程을 통해서 또 다른 경우에 下降的인 累積過程을 거쳐 均衡狀態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 의하면 經濟體系內의 經濟現象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은 相互間에 密接하면서도 多樣한 形態로 關聯을 맺고 있어서

(12) 朴基赫, 經濟學史, 1982, 法文社, p. 245 참조.

(13) H. Richt, 文化科學과 自然科學, 7期老譯, 三星文化文庫 26, 5章〈概念과 現實〉참조.

「리케르트」에 의하면 우리가 대하는 經驗的인 現實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 細密히 分析하면 萬수무窮 變遷적인 多樣性의 塊, 우리로서는 機關할 수 없는 多樣한 것이 되며 또한 現實은 <連續的인 異質性>(Stetige Andersartigkeit)을 갖는 것이 때문에 그대로는 合理的으로 認識될 수 없고 <異質性과 連續性은 概念的으로 分離>함으로써만 合理的으로 認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異質的인 不連續 個別化하든지 혹은 同質的인 連續化하든지 하여 可能할 수 있다는 것인데 異質的인 不連續的인 것은 文化科學의 價値關聯의 個別化的인 概念構成이 되고 同質的인 것은 自然科學的인 現象의 一般化 概念構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文化科學의 價値關聯의 個別化 概念構成이 있어서는 多樣한 經驗事實中에서 主觀的인 價値理念에 의해서 對象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한 要因의 變化에 의한 變動方向이 그에 대응하여 變化하는 要因에 反對의이며 同質 同質의 상대적인 것으로 볼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日常의 經濟生活에서 대하는 경우는 일단 한 要因의 變化에 의해 體系內的 變動이 始作되던 이 變動을 完結하거나 상쇄시키려는 方向으로 社會的 運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초 變動方向과 同一한 方向으로 運動이 일어나 일단 始作된 變動을 累積적으로 加速化시키는 例가 빈번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社會的 累積的 變化過程中 下降的 累積過程은 經濟體系內的 運動하는 主體가 커다란 異質性을 갖는 構成員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可能하다는 것이다.

「미르달」(Karl Gunnar Myrdal, 1898~)이 말하고 있는 累積過程의 例를 살펴보면⁽¹⁴⁾ 白人의 흑인에 대한 편견과 흑인들의 低生活水準이 累積적으로 作用하여 美國에 있어서의 흑인의 差別問題를 더욱 深化시켰다는 것이다. 즉 白人들의 흑인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흑인들의 社會的 進出的 길이 봉쇄되고 따라서 흑인들의 生活이 不利하게 形成되었고 또한 흑인들의 低級한 生活狀態가 백인들의 편견을 더욱 나쁘게 유도했다는 것이다.

「미르달」은 東南아시아의 低開發國家의 경우에 있어서도 累積過程을 잘 간파하고 있는데 低開發國家에 있어서는 低所得水準으로 인해 貯蓄形成이 잘 되지 못하고 따라서 低投資되고 낮은 資本形成 때문에 勞動의 利用이 제대로 되지 못해 勞動生産性이 낮으며 따라서 低所得水準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낮은 生活水準에서 오는 勞動기장의 해이 社會體系에 대한 合理的 思考의 결핍, 未來에의 向上可能性 포기 등의 좋지 못한 社會的 態度가 形成되어 앞서 말한 經濟的 要因과 이와 같은 非經濟的 要因이 累積作用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低開發國家가 經濟發展을 이룩하려면 먼저 社會的 態度의 改善에 의한 勞動의 質的 向上이 必要한데 이는 消費生活 水準의 向上을 통해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北歐學派의 學者들은 社會에 關한 研究를 理論的 研究와 實踐的 研究로 나누고 前者는 現在狀態事實 및 歷史的 נית권과정을 다루고 後者는 價値常態의 問題를 中心으로 未來의 研究를 다룬다. 그런데 理論的인 研究는 實踐的인 研究의 資料가 되는 것이므로

必要하고 實踐的 研究는 理論的인 研究의 토대가 되므로 이들 兩者는 社會科學을 研究하는 경우에 있어 不可分의 것이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北歐學派가 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 提案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偏見으로 부터 벗어나야 하고 事實研究를 토대로 價値前提를 直接的 具體的으로 도출하여 그 中에서 合理的인 것만을 取하여 明示的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古典派 經濟理論에서 經濟的인 要因과 非經濟的인 要因으로 區分하고 非經濟的인 要因을 經濟分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차라리 社會問題의 關聯이 있는 要因(relevant factor)과 社會問題와 關聯이 없는 要因(irrelevant factor)으로 區分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5. 왈라스의 方法論

「왈라스」(Léon Walras, 1834~1910)는 經濟學에 최초로 數學的인 方法論을 도입하여 「스미스」의 經濟學 體系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說明되던 一般均衡을 聯立方程式體系로 說明하고 있다. 「왈라스」는 科學的 認識對象은 主觀이나 價値가 介入되지 않은 純粹한 感覺資料로 환원시켜 이미 알려져 있는 事實을 基盤으로 表現함으로써 傳達되어야 하며 이러한 方法論은 自然科學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에서도 適用되어야 한다는 論理的 實證主義의 立場을 취하고 있어 經濟學에의 自然科學的인 方法의 適用을 강하게 主張하고 있다.

論理實證主義의 內容은 科學的인 知識은 共通의 客觀的이며 間主觀的인 것인데 客觀的으로 表現할 수 있는 것은 單純히 觀察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事實에 關聯된 全體의 一體系과의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形式的인 構造라고 하며 이 形式的인 構造가 점차 擴散되어 더 큰 關係로 高度化됨에 따라 體験이나 單純한 觀察의 內容을 넘어서 <論理的인 構造>인 科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論理的인 實證主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論理的인 構造의 關係이며 따라서 言語 符號의 分析이 기초가 된다. 論理實證主義者들은 모든 科學的인 認識對象을 感覺 可能한 것으로 轉換시키고 모든 用語를 對象의 觀察과 關聯하는 言語로 환원시켜 科學의 統一을 기도했으며 科學理論은 感覺資料의 一般化이므로 이를 과거의 일에 適用하면

(14) 미르달, 洪文蔚譯, 社會科學方法論, 日新社, 1981, pp.214~225.

說明이 되고 將來의 일에 응용하면 예측이 된다고 하며 論理的 構造는 具體的 事實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論理的 實證主義의 內容을 받아들인 알라스는 그의 主著 「純粹經濟學概要」에서 古典學派가 價格決定의 說明에 있어 經濟體系內的 全般的인 相互依存關係를 고리치 않고 一定한 財貨에 限해서 單의 需要供給에 의해 說明하려고 했음에 비해 經濟諸量間的 關係를 函數關係로 把握하고 經濟體系를 聯立方程式體系로 分析해 一般均衡解의 存在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安定條件을 究明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合理的인 定理를 重要視하고 科學的 研究의 기초로 삼고 있는 論理的 實證主義에 있어서는 公理는 經驗的 資料에 의해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先驗的 共通의인 것이기 때문에 經驗的 資料에 의해 論理的으로 檢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必要에 의해 發達되는 것이 計量經濟學이다.

이상온 綜合하면 經濟學의 認識對象은 經驗的 事實로 그 對象의 규정은 經濟全體系와의 관련하에서 客觀的으로 把握된 「形式的 構造」에 의해서 共通的으로 이루어지며 法則形成은 形式論理的인 方法을 채택하여 演繹法에 의해 構成되며 이에 客觀的으로 규정된 概念을 結合해서 假설을 설정하며 이 假설은 經驗에 비추어 檢證된다는 것이다.

6. 「알프레드 마샬」의 方法論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은 物理學에서는 量的 계측에 의해 그 變化를 계측할 수 있지만 經濟學에서는 單純한 量的 계측만으로는 無限히 複雜한 關係를 다 說明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당시 學界를 風靡하던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進化論에 影響을 받아 經濟社會의 變化는 단순한 數量的 크기의 증감이 아니고 無數히 많은 要因에 의해 그 變化의 方向이 決定지워질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라는 有機體와 變化를 유발시키는 要因 사이에 있어서도 相互作用이 있으며 또한 相互作用도 經濟社會의 發展단계에 따라 變化한다고 하는 有機的 成長論을 폈다. 「마샬」의 經濟的 安定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였느냐 하면 「마샬」은 당시 經濟社會의 現實이 「스미스」가 公言한 바 있는 예정조화적 均衡으로 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直視하고 또 「윅셀」(K. Wicksell, 1851~1926)이 말

한 바 있는 累積過剩에 의해 不均衡의 擴大가 可能하다는 것을 認知하고서도 經濟的 安定에 대한 信念을 갖고 있었다.

또한 「마샬」은 經濟主體의 性格變化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經濟主體인 人間은 經濟有機體의 發展에 따라 그 性格이 變化하며 다시 變化된 性格의 經濟主體는 經濟有機體의 發展 方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經濟主體는 그 經濟的 動機로 욕망(wants)과 活動(activities)의 두가지를 갖고 있는데 欲求(desire)가 進化되어 감에 따라 欲求의 充足을 위해 活動이 수단이고 欲求充足이 目的인 生理的인 前段階로 부터 活動 自體가 目的으로 되는 社會的 단계로 移行한다는 것이다. 欲求의 進化過程을 살펴보면 原始的인 食住의 단계로 부터 衣食住의 단계로 지나면 다시 多樣性을 위한 欲求(desire for variety), 남과 區別하고자 하는 欲求(desire for distinc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欲求(desire for excellencce)로 移行되어 점차 生理 위주의 欲求로부터 社會的 欲求로 轉환된다는 것이다.

「마샬」의 方法論을 綜合的으로 보면 經濟有機體의 變化는 無수히 많은 要因들의 複合的인 作用에 의해 進行되며 變化가 일어날 때 따라 다시 이 變化는 變化를 招來케 한 要因들은 다시 變化시키며 이러한 相互作用은 有機體의 發展단계에 따라 相異なる 수 있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需要供給法則에 있어서 超過需要가 發生했을 때 需給의 力學的인 힘에 의해 除去될 수도 있지만 單次的인 超過需要가 經濟主體인 消費者의 心理에 作用하여 더욱 加수요를 부채질하면 經濟狀態는 단순한 力學的 均衡이 아닌 새로운 有機體的 經濟狀態로 移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經濟活動이 같은 比率로만 反復進行되고 經濟主體인 人間의 性格도 靜的인 狀態로 靜止狀態(stationary state)라고 했다.

7.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方法論

「프리드먼」의 方法論은 규범적 판단을 배제하며 科學的 節次만 지키면 客觀性을 維持할 수 있으며 순수한 감각자로의 一般化에 의해 論理的 構造를 갖출 수 있다는 論理實證主義의 立場과 人間이 무뎠히는 不確定한 상황을 人間의 必要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상황으로 變化시키는데서만 그 存在意味를 찾는 實證主義의 立場에서 理解할 수 있는데 그

의 方法論의 主要 內容은 셋째 理論의 目的은 豫測에 있다. 따라서 特定理論의 價値는 그 理論의 目的에 대한 豫測力에 달려 있다. 둘째 社會科學은 方法論上 自然科學과 本質的 差異를 갖지 않는다. 셋째 規範經濟學과 實證經濟學은 區別되어야 하며 또 區別될 수 있다. 따라서 經濟學研究에 있어 價値는 배제되어야 하며 또 배제될 수 있고 이것이 經濟學이 指向해야 할 方法論의 方向이다. 셋째 經濟學이 價値를 배제하고 점차 發達함에 따라 實證的 知識에 의해서만 構成되어 絶對的 眞理에 接近하게 된다. (15)

以上과 같이 「프리드먼」은 方法論의 一元論을 主張하여 理論의 成立可能性 내지 有用性은 全적으로 豫測力에 두고 있으며 비록 가정이 非現實的이라도 그와 같은 가정하에서 서술하는 內容이 現實의 經驗資料에 의해 證明되던 理論으로서 成立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單純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理論일수록 좋은 理論이 된다는 보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假定이 非現實的이라는 말은 單純한 가정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16)

IV. 맺음말

우리는 以上에서 社會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方法論에 대해 學派와 學者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經濟學에 있어서의 方法論 論議는 아직 社會學 등과 같이 方法論 論議가 活潑한 社會科學內의 다른 分科에 미하던 비진한 감이 있다. 내세로 經濟學에서 이제까지 원용해온 分析方法은 數量的 客觀的 物質的인 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經驗하는 經濟社會의 現象은 그리한 分析方法만으로는 把握이 不可能한것은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社會學등의 分野에서 活潑히 論議되고 있는 現象學 解釋學 批判理論등의 主觀主義的 方法論의 채택이 앞으로의 課題가 될 줄로 믿는다.

參 考 文 獻

姜信澤, 「社會科學의 研究論理」, 博英社, 1981.
 金塚東, 「人間主義 社會學」, 民音社, 1978.
 金光雄, 「社會科學研究 方法論」, 博英社, 1981.

金東一外, 「사회과학방법론 비판」, 청람문화사, 1983.
 金泰吉外, 「現代社會와 哲學」, 文學과 知性社, 1983.
 金泰吉, 「現代社會와 哲學」, 文學과 知性社, 1981.
 J.R. 라베츠, 權寧大譯, 「科學과 道德」, 三星美術文化財團, 1979.
 H. 리케르트, 尹朋老譯, 「文化科學과 自然科學」, 三星文化財團, 1973.
 G. 유르달, 洪文信譯 「社會科學方法論」, 日新社, 1981.
 朴基赫, 「經濟學史」, 法文社, 1982.
 朴鍾鴻, 「一般論理學」, 博英社, 1975.
 李奎浩編著, 「社會科學의 方法論」, 玄岩社, 1980.
 李政在, 「經濟法則의 方法論의 批判」, 漢陽大學校 商經大學, 1972.
 J.N. 케인즈, 金斗熙譯, 「經濟學의 範圍와 方法」, 陽文社, 1947.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編, 「社會科學方法論」, 博英社, 1983
 R. 헤러트, 崔弘基譯, 「社會科學이란 무엇인가」, 三星美術文化財團, 1979.
 T.W. 허치슨, 金潤煥·盧志彥譯, 「近代經濟學說史」 普文閣, 1958.
 洪熾, 「밀튼프리드먼의 實證經濟學方法論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大學院, 1981.
 Blaug, Mark,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edited by Spiro J. Last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Blaug, Mark,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Boulding, Kenneth E., *Economics as a science*, McGraw Hill, 1970.
 Babbie Earl R., *Survey Research Methods*, Belmont, Calif: Wadsworth, 1973.
 Duverger, Maurice,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Praeger, Inc., 1964.
 Friedman, Milto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3.

(15) 홍훈, 밀튼프리드먼의 實證經濟學方法論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院 1982. pp.12~13 참조
 (16) Mark Blaug,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111~114

- Heilbroner, Robert, *The Worldly Philosopher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1.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 Keynes, John Neville, *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Kelly & Millman, Inc., 1955.
- Lekachman, Robert, *A History of Economic Ideas*, New York: M
- Lessnoff, Michael, *The Structure of Social Scie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 Machlup, Fritz, *Methodology of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Lundberg, George, A., *Foundations of Sociology*, New York: Macmillan, 1939.
- MacIver, Robert M., *A Textbook of Sociology*, New York: Rinehart and Co., 1937.
-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 eighth ed., London: Macmillan, 1959.
- Menger, Carl, *Principles of Economics*, The Free Press, 1950.
- Mill, John St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 Mill, John Stuart,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West Strand, 1944.
- Myrdal, Gunnar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Translated by Paul Street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3.
- Myrdal, Gunnar, *Value in Social Theory*, Edited by Paul Street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8.
- Robinson, Joan, *Economic Philosophy*, Middlesex: Penguin Books, 1962.
- Samuelson, Paul A., "Problems of Methodology-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3.
- Schmoller, Gustav, "Die Schriften von K. Menger und W. Dilthey zur Methodologie der Staats- und Sozial wissen-shaften," *Zur Literaturgeschichte der Staat und Sozialwissens* New York: Burt Franklin, 1968.
- Weber, Max,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1949.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